



ISSUE 2

# AI 분야 글로벌 협력 현황 분석: VC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global cooperation in AI: Focusing on attracting  
venture capital(VC) investment

- 장진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jincheul@spri.kr
- 유재홍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jayoo@spri.kr

---

## EXECUTIVE SUMMARY

최근 세계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AI 기업 및 국가 간 기술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AI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및 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 간 투자·협력 역시 Microsoft가 OpenAI에 투자, Google이 Anthropic에 투자한 사례와 같이 기업 간 투자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간 벤처캐피탈(VC) 투자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는 국가들의 특성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AI 분야 VC 투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VC 투자에 있어 자국 중심적이다. 한편,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치와 해외 투자 비중이 높으며, 영국 및 EU 국가는 AI 분야 해외 투자 비중이 높아 상호 협력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우수한 AI 인재에 의해 창업된 AI 기업이 적극적으로 VC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가의 대표적인 소버린 AI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해외 투자 유치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트웰브랩스, 업스테이지, 노타시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협력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5년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국민성장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한 투자 자본 확보를 통한 기업 생태계 활성화는 AI 강국 도약의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AI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금 확대, 규제 혁신 인센티브, 해외 진출 및 공동 연구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공약 달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As the global AI market rapidly grows and innovation in AI-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continues, technological competition among major AI companies and countries is also intensifying. Meanwhil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vestment in the AI field is increasing, and inter-company investment and collaboration is expanding through corporate investment networks.

This report analyzes cross-border venture capital (VC) investment flows,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actively pursuing global collaboration,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United States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share of VC investment in the AI sect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both highly domestically focused on VC investment. Meanwhile,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Israel attract significant capital and foreign investment from the US, a leading AI country. The United Kingdom and EU countries also exhibit a high proportion of overseas investment in AI, demonstrating a structure centered on mutual cooperation. Furthermore, there are examples of AI startups founded by outstanding AI talent actively attracting VC investment and growing into leading national AI companies.

Currently, Korea's share of foreign investment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promising domestic startups, such as Twelve Labs, Upstage, and Nota AI, are beginning to attract overseas investment and collaborate. Furthermore, with the government announcement of a plan to establish a national growth fund for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AI, the growth of Korea's AI industry is expected.

In conclusion, securing investment capital through global collaboration and revitalizing the corporate ecosystem are prerequisites for Korea's leap to becoming an AI powerhouse. To achieve this, increased investment in fostering AI companies, regulatory innovation incentives, and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and joint research should be implemented.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not only achieve the goal of becoming the third level of countries in AI, but also elevate AI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Korea.

## I 서론

## ○ 세계 AI 시장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AI 기업과 국가 간 경쟁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치열하게 전개 중

-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은 2025년 2,442억 달러에서 2031년 1조 100억 달러로 연평균 26.6% 성장할 전망으로 발표<sup>1</sup>
- OpenAI, DeepSeek 등의 주요 글로벌 AI 기업은 진보된 기술력과 성능 개선은 물론,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신규 AI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 중
  - 2025년 1월 DeepSeek-R1이 중국에서 출시된 이후, OpenAI와 Anthropic은 각각 o3-pro, Opus 4 등의 추론 특화 모델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AI 기업에 의해 발표되는 AI 모델의 성능은 지속적으로 증가
- 글로벌 AI 기업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제품과 기술 발표도 증가
  - 대표적으로, Anthropic은 사용자 PC의 화면 커서를 조작하는 Computer Use를, OpenAI 역시 사용자를 대신하여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오퍼레이터(Operator)를 출시

## ○ 글로벌 기업과 국가는 AI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 경쟁과 함께, 상호 투자 및 협력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

- Microsoft의 OpenAI에 대한 투자, Google의 Anthropic 투자를 비롯하여, **각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투자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진보된 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
  - 주요 AI 빅테크의 투자는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우수한 AI 모델을 적용하여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함과 동시에, 투자받은 AI 스타트업은 빅테크의 인프라와 데이터 지원을 받는 협력에 기여<sup>2</sup>

<sup>1</sup> <https://www.statista.com/outlook/tmo/artificial-intelligence/worldwide>

<sup>2</sup> 참고: Eze Vidra(2024), The Magnificent Seven Invest \$400 Billion a year in Frontier Technologies. <https://vccafe.com/2024/05/30/the-magnificent-seven-invest-400-billion-a-year-in-frontier-technolo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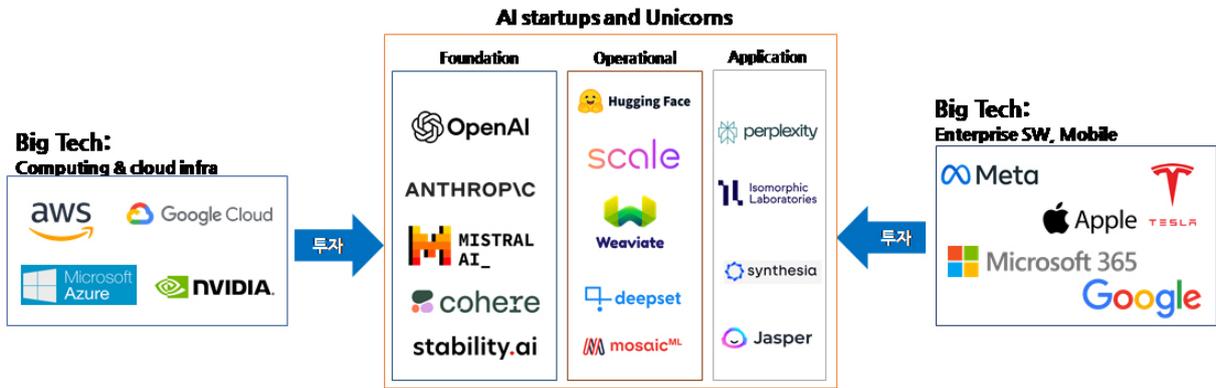
[표 1] 빅테크의 주요 스타트업 투자 사례

투자자	투자액(2023~2024)	투자받은 기업
Microsoft	168억 달러	OpenAI에 100억 달러 이상, Inflection AI, Wayve에 2억 달러 이상 투자
Google(Alphabet)	102억 달러	AI21(이스라엘), Anthropic, Hugging Face 등 4억 달러 이상 투자
NVIDIA	64억 달러	Cohere(캐나다), Aleph Alpha(독일), RunwayML 등 4억 달러 이상 투자
Amazon	60억 달러	Anthropic, Inflection AI, Hugging Face, RunwayML 등에 투자
Apple	6.14억 달러	최근 Perplexity AI 인수 검토(2025)
Meta	0.49억 달러	Scale AI에 지분 투자(2025)

출처: 기업 보도자료 및 웹 자료, 저자 재구성

- 즉, 클라우드 플랫폼, 컴퓨팅 인프라, 기업 SW 및 모바일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빅테크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AI 생태계 전반을 구성<sup>3</sup>

[그림 1] AI 빅테크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출처: Dealroom.co 및 저자 재구성

<sup>3</sup> 참고: Dealroom.co(2024), The Magnificent 7: The Venture Capital frontier & the new AI wild west

## ○ 우리나라의 AI 기업은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해외 성과 확대가 필요

- 2024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sup>4</sup>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업은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인공지능 사업 운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
  - 지난 2020~2023년 4년간 인공지능 기업은 AI 인력 부족 문제를, 2024년에는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
- 한편, CB Insights에서 발표한 2025년 세계 100대 AI 기업<sup>5</sup>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중 4개社\*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트웰브랩스(콘텐츠 생성), 업스테이지(파운데이션 모델), 디노티시아(벡터 DB), 노타AI(엣지 디바이스 인프라)

## ○ 본 보고서에서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 생태계가 활발한 국가를 탐색하고 그들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둠

- 글로벌 AI 지표를 제공하는 OECD.ai<sup>6</sup>에서 2023년까지의 국가별 AI 스타트업\* 대상의 VC 투자 흐름 데이터를 추출하여 투자 협력 관계를 분석<sup>7</sup>
  - \* OECD.ai에서는 AI 스타트업을 선별할 때,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일반적인 AI 키워드, “신경망”, “딥러닝”, “강화학습”과 같은 AI 기술 키워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자율 주행”과 같은 AI 응용 분야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VC 투자 현황 분석
-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간 투자(VC)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4 출처: SPRI(2025). 2024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5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report/artificial-intelligence-top-startups-2025/>

6 OECD.ai는 영국의 민간 분석 기관인 Preqin의 사모펀드 거래, 펀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AI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VC) 금융 투자를 추정

7 추출 기준일: 2025년 6월 30일

## II AI 분야 글로벌 VC 투자 협력 현황

### ○ 본 장에서는 AI 분야의 VC 투자 규모를 투자 유치(받은) 규모와 투자 집행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

-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이 자국 또는 해외 국가의 VC로부터 투자받은 총액, 투자 집행은 투자자가 자국 또는 해외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총액
  - ※ 투자 유치 규모 = 한 국가 내 AI 스타트업들이 국내외 VC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총액
  - ※ 투자 집행 규모 = 한 국가의 VC들이 국내외 투자한 총액

### 1. AI 분야 VC 투자 규모

- (세계 AI 분야 VC 투자 유치 규모) OECD.ai(2025)에 따르면, 전 세계 AI 분야에서 VC의 투자를 받은 규모<sup>B</sup>는 2024년 기준 1,476억 달러 규모로, 2021년 최고치(2,259억 달러) 이후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

[표 2] AI 분야 글로벌 VC 투자 유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투자액	87,561	88,447	106,077	225,919	138,809	113,570	147,636

출처: OECD.ai

[그림 2] AI 분야 글로벌 VC 투자 유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sup>B</sup> OECD.AI (2025), data from Preqin, last updated 2025-06-25, accessed on 2025-06-30, <https://oecd.ai/>

## ○ (국가별 VC 투자 유치 규모) 세계 AI 분야의 투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2021년부터 2023년 전체 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에서 2024년에는 반등

- 이는 2020년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금융 위기 문제, 고용 불안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영향<sup>9</sup>이 있었으나, 생성형 AI 붐과 함께 2024년 이후 점차 반등한 것으로 해석

[표 3] 세계 AI 분야 VC 투자 유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합계
미국	38,796	44,738	55,223	117,347	62,634	65,123	95,038	478,899
중국	37,383	25,230	31,279	52,864	24,496	25,996	16,967	214,215
영국	2,016	3,659	3,151	8,467	7,905	3,761	5,143	34,102
독일	706	2,264	1,521	6,038	4,411	3,028	4,146	22,114
인도	635	1,324	1,797	5,127	4,883	2,140	2,243	18,149
캐나다	1,248	1,683	1,506	4,799	2,872	2,068	3,311	17,487
이스라엘	973	1,411	2,144	4,308	4,220	1,871	1,855	16,782
한국	700	894	1,107	4,311	3,982	2,312	2,584	15,890
프랑스	654	899	1,201	2,651	2,572	2,024	2,522	12,523
싱가포르	693	607	586	2,753	1,759	2,795	3,471	12,664
일본	1,230	1,371	1,198	1,410	1,842	1,771	1,631	10,453

출처: OECD.ai

## ○ (투자 유치 규모 중 해외 투자 유치 비중) 국가별 투자 유치 규모 중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비중은 싱가포르(76.4%), 독일(71.5%), 캐나다(70.3%), 이스라엘(70.0%), 영국(68.4%) 순으로 나타남

-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투자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임
  - \* 국가별 해외 VC 투자 유치 중 미국의 투자 비중: 이스라엘(31.8%), 영국(25.2%), 캐나다(24.3%), 싱가포르(21.5%), 독일(19.2%) 등
- 반면, 한국과 일본은 해외 투자 유치 비중이 각각 20.4%, 35.3% 수준으로 미국, 중국 등 선도국을 제외하면 낮게 나타남

<sup>9</sup> 참고: 산업연구원(2023),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표 4] VC 투자 규모 중 해외 투자 유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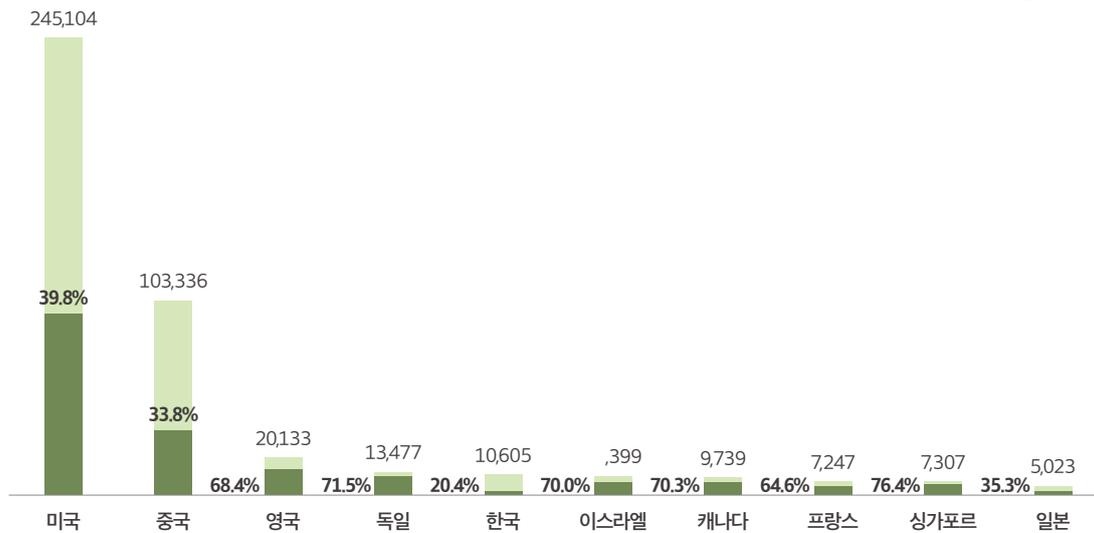
국가	2021	2022	2023	3개년 평균 <sup>10</sup>
미국	43.6%	34.8%	37.6%	39.8%
중국	31.2%	21.6%	50.9%	33.8%
영국	64.9%	69.1%	75.0%	68.4%
독일	74.3%	68.1%	70.9%	71.5%
이스라엘	70.8%	68.3%	71.8%	70.0%
한국	24.3%	21.2%	11.7%	20.4%
캐나다	71.3%	69.8%	68.8%	70.3%
프랑스	62.7%	62.9%	69.0%	64.6%
싱가포르	73.6%	67.1%	87.5%	76.4%
일본	36.0%	28.2%	42.1%	35.3%

출처: OECD.ai

- 아래 [그림 3]과 같이, 3년(2021~2023년)간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와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해외 유치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특히, 싱가포르는 절대적인 투자액 대비 해외 투자 유치의 비중(76.4%)이 매우 높음

[그림 3] 2021~2023년 국가별 해외 VC 투자 유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sup>10</sup> (3개년 평균) = (3개년 간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액 합계)/(3개년 총 투자 유치액 합계)

## 2. 국가별 VC 투자 유치·집행 현황

### ○ 국가별 VC 투자 유치 및 집행 규모 현황은 [그림 3] 순서에 따라 미국·중국, 영국·독일, 한국·이스라엘, 캐나다·프랑스, 싱가포르·일본 순으로 비교

※ 각 [표]는 OECD.ai에서 수집한 주요 투자 유치 및 집행 대상 국가를 표시한 것으로, 일부 비공개 투자 사례 및 누락 가능성이 있음. 즉, [표]에 표기되지 않은 국가 간 투자 협력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1) 미국·중국

### ○ (미국·중국의 VC 투자 유치 비중) 미국은 자국 내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비중이 62.4%로 높고, 중국 역시 자국 내 투자 유치 비중이 49.1%로 높음

- (미국의 국내 투자 유치)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유치 비중이 높은 것은 빅테크 기업이 우수한 기술 수준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영향
  - 2023년 투자 사례로는 Microsoft의 OpenAI 투자(100억 달러), Google의 Anthropic(20억 달러 이상), Hugging Face(2.35억 달러 이상) 투자로, 이들은 현재 AI 모델 및 AI 모델 라이브러리 플랫폼의 선두 주자
  - 즉, 미국은 **자국 AI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 VC 투자**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생태계 입지 강화
-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VC 투자자는 영국(6.3%), 싱가포르(5.7%), 일본(2.3%), 캐나다(2.1%), 중국(1.1%), 한국(1.0%), 기타(중동 국가 등)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0.6%), UAE(0.3%), 카타르(0.1%) 등의 중동 국가들도 투자 진행
- (중국의 국내 투자 유치) 중국은 국가 정책 자금과 중국의 빅테크(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자금을 통한 자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중국 국내 VC와 대표 빅테크들은 주요 AI 스타트업에 적극적 투자
    - \* 중국 내 여섯 마리의 작은 용(六小龙)<sup>ii</sup>으로 불리는 문샷(Moonshot AI), 지푸(Zhipu AI), 바이추안(Baichuan AI), 01.AI, 스텝펀(StepFun), 미니맥스(MiniMax)에 대한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ii <https://brunch.co.kr/@ditaltrend/265>

[표 5] 중국 빅테크의 중국 내 AI 스타트업 투자

투자자	투자액(~2025)	투자받은 기업
Qiming Venture Partners	8억 달러	Zhipu AI, StepFun
LightSpeed China Partners	4억 달러	Zhipu AI
Monolith Management	2.65억 달러	Moonshot AI
Tencent Holdings	3억 달러+	Moonshot AI

출처: Bloomberg, 저자 재구성

- 중국 스타트업에 의해 개발된 AI 모델\*은 **우수한 성능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이 화제가 된 바 있음

\* 2025년 공개된 문샷 AI의 Kimi K2는 MATH-500에서 97.4% 정답률을 보이며 Gemini 2.5(95.2%), Claude 3.7 Sonnet(96.2%)보다 우수하였으며, 칭화대학교에서 창업한 지푸 AI의 GLM-4.5는 MMLU-Pro, AIME 24 등 12개 주요 벤치마크 평균 63.2점으로 o3(65점), Grok 4(63.6점)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

[표 6] 미국·중국의 AI 분야 VC 투자 유치(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미국의 투자 유치(65,123)		중국의 투자 유치(25,996)	
미국(62.4%)	40,612	중국(49.1%)	12,776
불특정(9.4%)	6,129	불특정(12.5%)	3,256
영국(6.3%)	4,093	네덜란드(6.2%)	1,611
싱가포르(5.7%)	3,729	UAE(3.4%)	874
일본(2.3%)	1,525	미국(2.6%)	688
캐나다(2.1%)	1,336	싱가포르(0.8%)	204
중국(1.1%)	689	스위스(0.3%)	75
한국(1.0%)	629	영국(0.2%)	47
사우디아라비아(0.6%)	363	일본(0.1%)	15
네덜란드(0.3%)	225	한국(0.0%)	7
UAE(0.3%)	222	-	-

- (중국의 해외 투자 유치) 한편, AI 패권 경쟁을 향한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네덜란드(6.2%), UAE(3.4%)와 투자 관계를 형성하고 미국(3.0%), 싱가포르(1.0%), 영국(0.4%)으로부터도 투자 유치
  - 일본(0.1%, 1천 5백만 달러) 및 우리나라(0.0%, 7백만 달러)와는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으로 투자 유치 관계가 낮으며 **네덜란드와 중동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비중**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

### ○ (미국·중국의 VC 투자 집행 비중)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혁신 우위 경쟁으로 자국 중심의 투자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은 전체 VC 투자금의 약 84%를 미국 AI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영국(2.0%), 중국(1.3%), 독일(1.2%), 이스라엘(1.2%), 캐나다(1.0%), 싱가포르(0.9%), 프랑스(0.8%)에 투자
  - 미국 기반의 투자자가 북미 AI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AI 투자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기인
  - 해외에는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권 국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강소국가,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1~2% 내외 수준으로 투자
- 중국 역시 투자 집행액의 75.6%를 자국 내로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4.1%), 싱가포르(1.6%)에 투자
  - 미·중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2대 해외 투자국이며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중국과의 협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0.2%(3천 6백만 달러)로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과 비슷
- 미·중 간의 수출 규제, 상호 견제 기조 속에 양 국가 간 VC 투자도 202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한편, 중국의 해외 투자국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 집행은 24억 7천 8백만 달러('21), 12억 9천 6백만 달러('22), 6억 8천 5백만 달러('23)로 감소
  - 미국의 대중국 투자 유치는 71억 9천 1백만 달러('21), 21억 6천 5백만 달러('22), 6억 8천 8백만 달러('23)로, 마찬가지로 '21년도 이후 감소세

[표 7] 미국·중국의 AI 분야 VC 투자 집행(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미국의 투자 집행(48,432)		중국의 투자 집행(16,901)	
미국(83.9%)	40,612	중국(75.6%)	12,776
영국(2.0%)	947	미국(4.1%)	685
중국(1.3%)	615	싱가포르(1.6%)	269
이스라엘(1.2%)	595	영국(0.4%)	61
독일(1.2%)	581	일본(0.3%)	50
캐나다(1.0%)	502	UAE(0.3%)	46
싱가포르(0.9%)	420	한국(0.2%)	36
프랑스(0.8%)	367	인도(0.2%)	36

## 2) 영국·독일

### ○ (영국·독일의 VC 투자 유치 비중) 두 국가 모두 전체적인 VC 투자 유치 규모는 30억 달러 (2023년) 수준

- 영국은 유럽 내 AI 분야 VC 투자액에서 1위를 기록
  -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비롯한 우수한 연구 환경과 런던 중심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힘입은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영향
  - 이러한 환경에서 구글 딥마인드\*를 비롯한, 베네볼런트 AI(제약), Isomorphic Labs(신약 개발), Encord (AI 데이터), PolyAI(대화형 AI 플랫폼) 등이 영국을 대표하는 AI 유니콘으로 성장
  - \* 딥마인드는 2010년 데미스 허사비스(캠브리지 학사, UCL 박사), 무스타파 술레이만(옥스퍼드대 중퇴), 세인 레그(UCL 박사후 연구원)가 영국에서 공동 설립한 AI 기업으로 2014년 구글에 인수
- 영국에 투자하는 해외 VC의 비중은 미국(25.2%), 아시아[싱가포르(4.6%), 중국(1.6%)], 유럽[네덜란드 (3.5%), 독일(1.9%)], 그리고 중동[카타르(2.2%)] 외 불특정 국가(12.7%) 순서로 다수의 국가로부터 투자 유치
  - 영국의 AI 기반 게임 기업인 Scriptic이 미국 Amazon, Sony 등으로부터 총 6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Sky Engine, PolyAI 등의 AI 기업도 유럽, 미국 등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음

[표 8] 영국·독일의 AI 분야 VC 투자 유치(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영국의 투자 유치(3,761)		독일의 투자 유치(3,025)	
미국(25.2%)	947	독일(29.0%)	878
<b>영국(25.0%)</b>	<b>939</b>	미국(19.2%)	581
불특정(12.7%)	476	영국(6.7%)	203
싱가포르(4.6%)	174	싱가포르(6.2%)	188
네덜란드(3.5%)	132	불특정(5.5%)	166
카타르(2.2%)	83	스웨덴(2.9%)	88
독일(1.9%)	71	오스트리아(2.0%)	60
중국(1.6%)	62	네덜란드(1.6%)	49

- 독일의 대표 AI 기업인 알레프 알파(Aleph Alpha)가 2024년 출시한 Pharia-1-LLM은 독일어, 스페인어 등 유럽어에 특화되어 있으며, EU의 안전 가드레일 규제를 준수한 특징이 있음
  - Pharia-1-LLM-7B는 Llama 3.1-8B, Mistral-7B 등 비슷한 파라미터 크기의 모델 대비 **독일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sup>12</sup>
  - 알레프 알파는 보쉬, SAP, 슈와츠 등 세계적인 독일 기업과 미국의 HPE 등으로부터 5억 달러의 다국적 투자를 2023년에 유치<sup>13</sup>한 바 있음
- 또한, 독일은 디지털 인프라의 자립을 추진하면서, 오픈소스 언어모델 개발 그룹 ‘오픈GPT-엑스’와 ‘LEAM’ 등 독일어 특화 모델을 통해 비영어 언어인 독일어만의 AI 모델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한편, 독일에 투자하는 해외 VC의 비중은 미국(29.0%), 영국(6.7%), 싱가포르(6.2%) 순이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

### ○ (영국·독일의 VC 투자 집행 비중) 영국은 미국으로의 투자 집행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비영어권 국가인 독일의 경우 미국보다는 자국 투자 비중이 높음

- 영국은 미국 AI 기업에 대한 집행 비중이 약 53%로 절반을 넘는 반면 자국 내 투자 집행 비중은 약 12.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sup>12</sup> <https://huggingface.co/Aleph-Alpha/Pharia-1-LLM-7B-control>

<sup>13</sup>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989>

- 영국 소재의 벤처 캐피탈이 2023년에 Anthropic(미국), Mistral AI(프랑스), Cohere(캐나다), AI21(이스라엘) 등에 투자
- 한편, 미국과 자국 외 인도,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영미권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집행의 1% 내외 수준으로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테크 스타트업 강소국가와 중국에 투자

[표 9] 영국·독일의 AI 분야 VC 투자 집행(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영국의 투자 집행(7,670)		독일의 투자 집행(2,156)	
미국(53.1%)	4,076	<b>독일(40.7%)</b>	<b>878</b>
<b>영국(12.2%)</b>	<b>939</b>	미국(21.9%)	473
인도(8.9%)	681	스웨덴(10.6%)	229
캐나다(4.3%)	332	프랑스(6.0%)	130
스웨덴(3.4%)	262	영국(3.5%)	76
프랑스(2.3%)	178	캐나다(2.6%)	55
독일(2.3%)	173	싱가포르(2.5%)	53
이스라엘(1.3%)	103	오스트리아(1.2%)	25
싱가포르(1.2%)	93	이스라엘(0.8%)	17
중국(1.0%)	73	스위스(0.5%)	11

- 독일은 자국 내 투자 집행 비중이 40% 이상이며, 미국과 다른 유럽 내 국가인 스웨덴, 프랑스 등의 투자 집행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 한편, 독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 집행 규모 비중이 0.5% (1천만 달러) 수준으로 낮음

### 3) 한국·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의 VC 투자 유치 비중)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 대비 미국 등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 비중이 약 72%로 높은 반면, 한국은 국내 투자가 88%의 비중 차지

- 이스라엘의 대표 AI 스타트업 AI21은 우수한 기업용 트랜스포머 모델 개발 기술을 인정받아 Google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액 중 자국 비중(88.3%)이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카카오, 네이버 등의 대기업 자본이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례가 다수
  - 한편 해외 VC가 국내 AI 기업에 투자한 주요 사례로는 미국 VC Applied Ventures의 마키나락스 투자, Duke Angel Networks의 슈퍼브에이아이 투자를 비롯하여, 일본 소프트뱅크벤처스가 한국의 크래프트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루이드 등에 투자한 바 있음

[표 10] 이스라엘·한국의 AI 분야 VC 투자 유치(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이스라엘의 투자 유치(1,871)		한국의 투자 유치(2,312)	
미국(31.8%)	595	한국(88.3%)	2,042
이스라엘(28.2%)	527	미국(2.5%)	57
불특정(6.0%)	112	중국(1.6%)	36
영국(5.3%)	100	불특정(1.0%)	24
스위스(3.2%)	60	일본(0.8%)	19
태국(3.2%)	60	UAE(0.5%)	11
일본(2.6%)	49	싱가포르(0.4%)	10
스웨덴(1.8%)	34	이스라엘(0.0%)	1
중국(1.6%)	30		
호주(1.4%)	27		

○ (이스라엘·한국의 VC 투자 집행 비중) 비영어 국가인 두 나라는 자국 중심의 VC 투자 집행 형태를 보임

- 이스라엘은 해외 국가 중 미국에 대한 투자가 43.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
  - 자국과 미국 내 기업 투자가 전체 93%, 기타 해외 국가에 대한 투자 집행 규모는 7% 미만으로 강력한 미국과의 투자 협력 관계를 보여줌
- 우리나라 역시 해외 국가 중 미국의 비중이 22.3%로 가장 높음
  - 우리나라는 자국 투자가 66.5%로 높고, 미국 외 해외 국가 투자 비중은 약 11% 수준으로 그 중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각각 1.8%, 1.7%로 상대적 투자 비중이 높은 편

[표 11] 이스라엘·한국의 AI 분야 VC 투자 집행(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이스라엘의 투자 집행(1,055)		한국의 투자 집행(3,071)	
이스라엘(50.0%)	527	한국(66.5%)	2,042
미국(43.3%)	457	미국(22.3%)	685
프랑스(0.8%)	8	캐나다(1.8%)	56
독일(0.5%)	5	싱가포르(1.7%)	53
호주(0.4%)	4	중국(0.2%)	7
캐나다(0.4%)	4	인도(0.1%)	4
오스트리아(0.4%)	4	이스라엘(0.1%)	3
인도(0.1%)	1	독일(0.1%)	3
영국(0.1%)	1	-	-
싱가포르(0.1%)	1	-	-

#### 4) 캐나다·프랑스

○ (캐나다·프랑스의 VC 투자 유치 비중) 두 국가 모두 자국과 미국, 영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비중이 높은 국가

[표 12] 캐나다·프랑스의 AI 분야 VC 투자 유치(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캐나다의 투자 유치(2,068)		프랑스의 투자 유치(2,024)	
캐나다(31.0%)	645	프랑스(31.0%)	627
미국(24.3%)	503	미국(18.1%)	367
영국(15.7%)	325	영국(10.4%)	211
싱가포르(4.6%)	96	불특정(7.9%)	160
독일(2.8%)	57	벨기에(7.4%)	150
한국(2.7%)	56	독일(6.4%)	130
불특정(2.1%)	44	호주(3.4%)	69
일본(1.7%)	36	네덜란드(3.0%)	60
스위스(1.6%)	34	사우디아라비아(1.6%)	33
스웨덴(1.4%)	29	룩셈부르크(1.6%)	32

- 캐나다 AI 스타트업 Cohere가 캐나다는 물론 영국, 미국 등으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음
  - 구글 브레인 출신의 에이단 고메즈, 아이반 장, 닉 프로스트에 의해 창업되었으며, 특히 에이단 고메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한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의 **공저자 중 한 명**
  - Cohere의 투자에는 토론토대 제프리 힌튼 교수, 스탠퍼드대 페이페이 리 교수 등 AI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투자에 참여한 바 있음
- 프랑스에서는 자국 대표 AI 기업인 Mistral AI가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유럽 국가의 V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바 있음
  - 2024년 Microsoft와 계약을 체결하여 Azure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이며, IBM, Databricks 등과 플랫폼 협업을 추진
  - 최근 Mistral AI는 UAE의 국부 펀드 MGX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에 착수<sup>14</sup>

○ (캐나다·프랑스의 VC 투자 집행 비중)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는 미국 투자 집행 비중이 높은 반면, 비영어 국가인 프랑스는 자국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특징을 보임

[표 13] 캐나다·프랑스의 AI 분야 VC 투자 집행(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캐나다의 투자 집행(2,217)		프랑스의 투자 집행(1,456)	
미국(61.8%)	1,369	프랑스(43.1%)	627
캐나다(29.1%)	645	미국(17.7%)	258
영국(1.9%)	42	스웨덴(16.6%)	241
인도(1.5%)	33	영국(4.8%)	70
이스라엘(0.5%)	10	인도네시아(3.2%)	47
프랑스(0.4%)	8	독일(2.4%)	35
독일(0.3%)	6	중국(1.5%)	22
싱가포르(0.2%)	4	덴마크(1.4%)	21
일본(0.1%)	3	이스라엘(1.2%)	17
스위스(0.1%)	3	스위스(0.9%)	13

<sup>14</sup> Reuters. Mistral in talks with VC firms, MGX to raise funds at \$10 billion valuation, FT reports. 2025-08-02. <https://www.reuters.com/technology/mistral-talks-with-vc-firms-mgx-raise-funds-10-billion-valuation-ft-reports-2025-08-01/>

- 캐나다는 미국(61.8%)과 자국(19.1%)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약 91%로 거의 대부분을 북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외 영국, 인도,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유럽, 아시아 주요국에 일부 투자
  - 2023년 캐나다 소재 벤처 캐피탈이 Mistral AI(프랑스), CoreWeave(미국) 등의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

[표 14] 캐나다의 해외 AI 스타트업 투자 사례

투자자	투자액(백만USD)	투자받은 기업
Lightspeed Commerce	비공개	Mistral AI(프랑스)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of Ontario	80	CoreWeave(미국)
Radical Ventures	0.7	Twelve labs(미국)
Georgian Partners	8	PolyAI(영국)

출처: Dealroom.co, 저자 재구성

- 프랑스는 자국 내 투자 비중이 약 43%로 높고, 다음으로 미국(17.7%), 유럽 국가 중 스웨덴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16.6%) 투자
  - 2025년 프랑스는 정부의 AI 투자를 확대(총 1,090억 유로)하고, 대부분을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투입해 국가 차원의 AI 생태계 강화를 추진

## 5) 싱가포르·일본

### ○ (싱가포르·일본의 VC 투자 유치 비중) 두 국가 모두 투자 유치 규모 대비 투자 집행액 규모가 크며, 자국 외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많음

- 싱가포르 AI 스타트업 Alethea, Locofy 등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사례가 있음
  -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1,1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이 존재(23년 말)<sup>15</sup>
- 일본의 사카나 AI는 NVIDIA와의 공동 연구 추진, 미국의 유명 VC 및 AI 분야 저명한 인사\*의 투자를 받아 AI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sup>15</sup> <https://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182>

- 사카나 시는 구글 브레인 출신의 데이비드 하(David Ha)와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의 공저자인 라이언 존스가 공동 창업

\* 럭스캐피탈, 코슬라벤처스 등의 VC, 제프 딘 Google 수석 과학자, 클레망 델랑지 Hugging Face 창업자 등

[표 15] 싱가포르·일본의 AI 분야 VC 투자 유치(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2,795)		일본의 투자 유치(1,771)	
미국(15.0%)	420	일본(57.9%)	1,026
싱가포르(12.5%)	349	미국(17.4%)	309
중국(9.6%)	269	불특정(5.9%)	104
일본(4.9%)	137	싱가포르(4.0%)	71
말레이시아(4.0%)	113	대만(3.2%)	56
영국(3.3%)	93	중국(2.8%)	50
불특정(2.2%)	62	영국(2.0%)	35
독일(1.9%)	53	룩셈부르크(0.7%)	12
인도네시아(1.9%)	53	독일(0.6%)	10

### ○ (싱가포르·일본의 VC 투자 집행 비중) 싱가포르와 일본의 벤처 캐피탈이 미국의 기술력 높은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

- 싱가포르 역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나, 유럽,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투자 병행
  -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인 Temasek이 미국의 AI 칩 스타트업 d-Matrix(1억 달러, 2023년)를 비롯한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한 바 있으며, OpenAI에 투자 집행도 검토<sup>16</sup>한 바 있음
  - 2025년 미국 Anthropic은 13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투자에는 미국 VC인 아이코닉 캐피탈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국부 펀드(GIC), 카타르 국부 펀드(QIA) 등이 참여

<sup>16</sup> <https://reuters.com/technology/singapores-temasek-talks-invest-openai-ft-reports-2024-03-05>

[표 16] 싱가포르·일본의 AI 분야 VC 투자 집행(202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싱가포르의 투자 집행(5,105)		일본의 투자 집행(3,052)	
미국(73.0%)	3,729	미국(50.0%)	1,525
<b>싱가포르(6.8%)</b>	<b>349</b>	<b>일본(33.6%)</b>	<b>1,026</b>
스웨덴(4.5%)	230	싱가포르(4.5%)	137
중국(4.0%)	204	인도(1.7%)	52
독일(3.7%)	188	이스라엘(1.6%)	49
영국(3.4%)	174	인도네시아(1.4%)	43
캐나다(1.9%)	96	캐나다(1.2%)	36
일본(1.4%)	71	한국(0.6%)	19
인도(1.3%)	64	중국(0.5%)	16

- 일본의 해외 투자는 미국이 50%, 그 외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높음
  - 일본 소프트뱅크는 미국 AI 스타트업인 PicsArt, Labelbox 등에 각각 1억 달러 이상 투자(2021~2022년) 한 바 있음
  - 일본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액(1억 3천 7백만 달러)은 우리나라(1천 9백만 달러)와 중국(1천 8백만 달러)의 7배 수준
  - 일례로 싱가포르 AI 기업인 Locofy에 일본 Aviondor Group Investments가 투자한 사례(2021년)가 있음

## 6) 소결

### ○ 세계 AI 분야 VC 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4년에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국가 간 VC 투자와 협력은 미국으로 집중되는 경향

- Bain & Company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VC 투자액 중 미국이 64%를 차지하며 여전히 글로벌 VC 투자를 주도<sup>17</sup>
  - VC 자금의 45%가 SW와 AI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원천 기술인 파운데이션 및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투자 유치 비중이 높음

<sup>17</sup> 출처: Bain & Company(2025). Global Venture Capital Outlook: The Latest Trends.

- 미국이 AI 분야 VC 투자 유치 규모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인도, 캐나다 등에 이은 투자 규모로, 이는 일본,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준
- 자국 내 VC 투자 유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며 해외 간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 싱가포르 등
  - 비영어권 국가인 프랑스, 독일, 중국, 이스라엘, 한국은 자국의 VC 투자 집행 비중이 높고, 자국 언어 중심의 AI 기술력 및 주권 확보(소버린 AI)를 추진하는 특징이 있음

○ **각국의 투자 사례\*에 따르면, 실력 있는 AI 인재가 창업하여 뛰어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자국의 대표 AI 기업으로 성장**

\* 프랑스 Mistral AI, 독일 Aleph Alpha, 일본 사카나 AI, 캐나다 Cohere 등

- **투자 유치액이 투자 집행액보다 큰 국가는 미국(+166.9억 달러), 중국(+91.0억 달러), 이스라엘(+8.7억 달러), 독일(+8.7억 달러), 프랑스(+5.7억 달러) 등으로, 상대적으로 국내외 VC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로 볼 수 있음**
- 한국, 일본 등은 아직 해외 VC 투자 유치 비중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향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있음

### III 요약 및 시사

#### 1. 요약

##### ○ (미·중) AI 분야에서 글로벌 VC 투자 생태계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양상

- 최근 미국의 중국 AI 기술 견제 및 중국의 VC 투자 감소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 확대
  - 미국은 자국의 풍부한 VC 생태계를 중심으로 **자국 내 투자도 활발**
  - 한편, 글로벌 기술 및 인재 확보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VC 투자 강화**
- 특히, 미국은 2025년 7월 발표한 AI 행동 계획<sup>18</sup>을 통해 해외로 AI 모델을 포함한 **풀스택 AI 수출을 확대** 하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
  - 중국 역시 'AI+ 행동'<sup>19</sup>을 통해 자국의 AI 경험과 기술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AI 능력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면서 오픈소스 활성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sup>20</sup>하면서 미국과 경쟁
- 이에, 미·중의 해외 AI 기업 투자도 AI 주도권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 (영미권)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과 미국의 협력 강화

- 미국은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영미권 국가들의 VC 투자 핵심 파트너
  - 영국, 캐나다가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비중과 이들 국가에서 해외 투자 대상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국에 비해 절대적
    - \* (예) 해외 VC 투자 유치액 중 미국의 비중 : 영국(25.2%), 캐나다(24.3%)
  - 이들은 공통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인적, 기술 교류에 유리
    - \*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캐나다 주요 AI 클러스터에 AI 연구 거점을 설치해 **인재 확보 및 연구 수행**: 토론토 (IBM, Google, NVIDIA), 몬트리올(Google, Meta, MS)

<sup>18</sup> <https://www.ai.gov/action-plan>

<sup>19</sup> KOSTEC 정책동향(2025.8.29.), 중국 'AI+ 행동' 개시, 지능사회 3단계 로드맵 공개

<sup>20</su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711090002879>

## ○ (유럽)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리더 국가로서 AI 협력에서도 영향력

-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에 의한 유럽 디지털 시장의 보호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소버린 AI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독일과 프랑스의 자국 AI 산업, 나아가 EU 차원의 AI 산업 진흥과 보호를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투자 협력 관계를 유지
  - 한편, 독일, 프랑스는 AI 하드웨어 및 인프라 구축으로 소버린 AI를 강화해 가는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 기업인 NVIDIA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
    - \* NVIDIA는 도이치텔레콤과 협력하여 자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 Microsoft와 Amazon은 프랑스에 첨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상대국과 협력

## ○ (강소 국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국가 규모에 비해 AI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투자 협력 파트너로 역할

-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고 있으며 인력과 기술의 주요 공급처로서 역할
  - 실제,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출신 고급 AI 인재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AI 기업들의 인수가 상당히 진행
    - \* NVIDIA 임직원 32,225명의 링크드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 명문 공대 테크니온 출신 1,119명, 텔아비브대 506명으로 스탠퍼드대 출신 67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이는 NVIDIA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인수하는 과정에 영입<sup>21</sup>
-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비중이 높음
  - 싱가포르는 영국 Tortoise Intelligence에서 발표하는 Global AI Index에서 AI 집중도(Intensity)<sup>22</sup> 부문 1위를 보였으며, 이는 인구당 상대적인 규모에서 우위를 보이며 아시아의 AI 기업 허브\*로서 입지를 구축
    - \*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재, 간소한 행정, 낮은 법인세,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 등 강점으로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와 함께 'AI 선도국'으로 분류(BCG, '24.11)
  - 싱가포르는 그간 미·중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경쟁으로 인해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 직면<sup>23</sup>

<sup>21</sup>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6/25/INPIXQ6CCFGMFO32VYDFKOEXI4/](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6/25/INPIXQ6CCFGMFO32VYDFKOEXI4/)

<sup>22</sup> 집중도(Intensity)는 국가 인구 또는 경제 규모 대비 AI 역량으로,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소규모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

<sup>23</sup> <https://www.ft.com/content/31dc3980-ef69-4046-a255-f9d6b67a36a2>

## ○ (우리의 현황)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AI 분야 VC 투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및 미국 중심의 협력 관계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국 내 투자 유치 비중이 높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투자도 미국에 편중된 경향
  -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스라엘,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는 형성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미미

## 2. 시사점

### ○ 세계 각국의 활발한 투자로 기술과 인재, 미래 산업을 선점해 가고 있음

- 각국은 AI 인프라, 플랫폼,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 가치사슬에서 입지 강화를 위해 글로벌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 중
  - 유럽, 중동 등 소버린 AI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AI 반도체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반대로 자국의 기술과 서비스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각국의 AI 전문 스타트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VC 투자를 받음으로써 **자국의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
  -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Mistral AI, 독일의 Aleph Alpha, 중국의 문샷 AI, 일본의 사카나 AI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력으로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하며 **독자적 거대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달성**

### ○ 글로벌 VC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협력 다각화와 기술 및 자본 확보 필요

- VC 투자 및 수출 형태에서 여전히 미국을 지향하는 협력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 중국, 중동/MENA, 유럽 시장 등 다양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 기반 강화가 필요

- 특히, 미국 빅테크의 독점력과 기술 종속을 우려한 국가들과의 인프라, 플랫폼, 독자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개발에 상호 협력 기회 창출 가능\*

\* 최근 미국의 AI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는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으며<sup>24</sup>, Grab, Carousell 등의 유니콘 AI 기업들도 글로벌 투자 유치 환경이 우수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싱가포르는 미국과 서방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투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시장 기반 확대

\* 싱가포르의 투자 유치 비중: 중국(9.6%), 일본(4.9%), 말레이시아(4.0%), 인도네시아(1.9%) 등

•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발굴될 앞으로의 성과를 추후 해외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

- 정부의 지원하에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수출 레퍼런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 VC 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 개척을 병행하여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시도가 필요

\* AI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미진 이유로 '내수용으로 계획·개발하여 해외 시장에 경쟁력 부족'(38.3%), '수출을 할 만한 레퍼런스 미구축'(38.0%),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31.7%) 등을 언급(2024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 참고 글로벌 AI 개발 협력 사례

### ◆ UAE의 G42와 프랑스 Mistral AI가 차세대 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략적 협력(25.5)<sup>25</sup>

- G42의 AI 운영 및 역량 개발에 미스트랄 AI의 LLM 기술, 솔루션, 제품과의 통합 협력, 아울러 미스트랄 AI는 협력의 일환으로 아부다비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AI 대학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인공지능 대학(MBZUAI)'과 차세대 AI 플랫폼 및 인프라 지원, 최첨단 기초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최신 연구 성과를 실제 AI 솔루션으로 전환이 모두 협력 검토

### ◆ SK텔레콤은 미국 AI 스타트업에 다각적 투자<sup>26</sup>

- SKT는 미국 Anthropic(2023), Perplexity(2024), Together AI(2025) 등에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SKT AI 서비스인 에이닷에 Perplexity 검색엔진을 탑재하고, 글로벌 서비스 '에스터(A\*,Aster)' 개발을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진행

<sup>24</sup> 중국 AI 에이전트 '마누스'로 잘 알려진 버터플라이 이펙트 테크놀로지는 미국 투자사 벤치마크(Benchmark) 주도로 7500만 달러(1조 35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를 계획했지만 미국의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 규제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5년 3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틱톡의 모기업 Bytedance, 쇼핑 플랫폼인 Tabcut, 쉬인 등 다른 기업도 싱가포르로 자산 이전을 진행

<sup>25</sup> <https://zdnet.co.kr/view/?no=20250523051008>

<sup>26</sup> <https://cohere.com/blog/lg-cns-partnership>

## ○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기 인재 양성, 기술 연구(R&D)에 대한 지속적인 중장기적 투자 강화 필요

- 이스라엘은 자원, 인적, 지리적 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기술기업들이 R&D 센터를 개소해 협력할 만한 기술 인재 부국으로 성장
  - \* 이스라엘은 NVIDIA의 해외 최대 R&D 센터를 비롯해, MS, Google, Intel 등 해외 우수 기업들의 R&D 센터 434여 개를 유치 운영하고 있음(25.3월 기준<sup>27</sup>)
  - 특히, 탈피오토와 같은 과학기술사관제도를 통해 IT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창업으로 연결시켜 사실상 이스라엘 IT 인력의 산실로 역할
- 해외 투자를 받는 기업은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술 기업으로서 이들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R&D 강화 필요
  - 기술력을 갖춘 기업가(entrepreneurs)가 디지털 AI 시대를 주도
  - 대학, 대학원에서의 독자적 창의적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도전 과제를 추진 하며,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 확대 병행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분야 투자의 지속 확대 필요
  - 최근 과기정통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리아 IT 펀드(KIF)<sup>28</sup>’를 통한 유망 AI 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sup>29</sup>
  - 또한, 정부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AI에 30조 원을 투자할 계획<sup>30</sup>
    - \*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 원)에 더해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자금(75조 원)을 포함
  - 국내 유망 기업의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해외 유망 기술 기업의 인수와 인재 영입을 위해 정책 자금의 유연한 집행 필요

<sup>27</sup> Startup Nation Centr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rael: 434 R&D Centers Powering Global Innovation, 2025.3

<sup>28</sup> 코리아 IT 펀드는 2002년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가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3천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하였으며, IT분야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해 왔으며 최근(25.8) 존속기간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연장하고 투자금액을 확대할 것을 발표

<sup>29</sup> 과기정통부(2025.8.12.), “정부-이통사가 함께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위한 투자 확대·협력 의지 다져”

<sup>30</sup> 한국경제신문(2025.9.10.), “AI 30조, 반도체 21조…李 “충성 없는 혁신전쟁, 역량 총동원”

## ○ 글로벌 투자 협력 생태계 강화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

-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된 경제 규모와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싱가포르와 같이 AI 기술과 인재에 기반한, 집중도(Intensity) 높은 AI 강국으로서 포지셔닝이 현실적
  - 우리나라의 독자 AI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체제 구축을 위해서 근간이 되는 VC 생태계가 필수적
  - 국내 우수 AI 인재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해외의 인재, 자본 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투웨이 전략'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미·중을 비롯한 유럽,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해외 시장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리 AI 가치사슬 전반의 역량을 강화**

---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SPRi(2025). 2024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 NIA(2023). 인공지능(AI) 국제협력 현황 및 특징 분석.
- 산업연구원(2023).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 SPRi(2024). 국외 AI 시장 및 창업지원 정책 동향 조사 연구보고서.
- SPRi(2025). 2024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연구보고서.
- IITP AI·ICT Brief (2025.8.8).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들의 '폴스택 AI 허브'로 부상.
- ETRI ICT정책 이슈&트렌드(2024). 소버린 AI 동향 및 R&D에 대한 시사점.

### 2. 국외문헌

- Statista(2024). Artificial Intelligence : in-depth market analysis.
- CB Insights(2025). AI 100: The most promi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of 2025.
- Boston Consulting Group(2024). The AI Maturity Matrix.
- Tortoise Intelligence(2024).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2024.
- Bloomberg(2025). 至少六家中國知名VC 數年來罕見募資浪潮 總額超20億美元
- Bain & Company(2025). Global Venture Capital Outlook: The Latest Trends.

### 3. 기타

- OECD.AI (2025), data from Preqin, last updated 2025-06-25, accessed on 2025-06-30, <https://oecd.ai/>